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병록^{1*}, 황환²

¹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The Effect of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 Abuse Awarenes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young-Rock Lee^{1*}, Hwan Hwang²

¹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²Division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인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방향으로, 자아존중감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을 향상시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복지학적인 융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학부모,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인식,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child abus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parents' self-esteem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ata were collected from 389 school parents residing A city of Gyeonggi-do. The results of analysing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the parenting stress of school parents had nega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2) the self-esteem of school parents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child abuse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their parenting stress and the enhancement of their self-esteem.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the convergence approach in terms of pedagogy, psychology, social welfare.

Key Words :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Awareness of child abuse, Self-esteem, Mediating effect

1. 서론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과 각종 조사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아동복지법이 대폭 개정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족주의적·

*Corresponding Author : Byoung-Rock Lee(brlee@konyang.ac.kr)

Received August 27,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1,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가부장제적 가치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를 16,651건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아동학대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1]. 보건복지부의 한국 아동 5명당 2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아동 부모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2].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무려 90%에 이른다. 또한 아동학대의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가량이다[1, 재인용].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대발생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연구와 관련 대책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홍순옥과 이옥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연구의 초점도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3].

그러나 현재까지의 아동학대인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아동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인식에 관한 홍순옥과 이옥경[3, 재인용]의 연구는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정해숙과 이은주[5]의 연구와 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의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이나 아동의 장애여부 등의 변수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6].

한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소진과 전세경은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학부모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으로 정의하였다[7].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주요 가해자가 부양가족이며, 부양부담과 부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 신체적 구금 및 권리침해와 같은 명백한 학대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8].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진원[9]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인식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김희영과 윤혁석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직무스트레스의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54.9%로 매우 높다는 증명된 바 있다[10].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인식에서 자아존

중감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상호작용하여 학대나 방임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발생하게 한다[11]. 자녀양육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는 자아효능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은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 수 밖에 없다[10, 재인용]. 그리고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인식은 감소하게 된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희영과 윤혁석[10,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유아교사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아동학대인식도가 높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요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기존에 분석되지 않았던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아동학대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과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경로a는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 재인용]를 반영하였고, 경로b는 자아존중감이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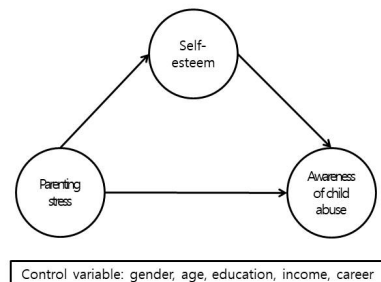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구결과[11, 재인용]를, 경로c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8, 재인용]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동학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 선정하였다[12]. 본 조사 이전에 아동학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학부모 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다시 일부 수정하였다.

이 조사는 수도권 A지역에 소재한 B복지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C평생학습센터 학습도우미 10명과 개별조사자 3명이 담당했다. 본 조사 이전에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주제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설문작성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조사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자발적으로 허락한 학부모들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수도권 A지역의 하위행정구역은 12개로 분류되어 있다. 전체적인 각 하위행정구역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각 지역별 비율에 맞추어 할당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총 40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15부를 제외시키고 389부의 설문지 응답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송정애[13]는 Abidin[14]이 개발한 아동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자신의 조사연구에 적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부모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총36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36문항 중에서 각 하위요인을 가

장 잘 대표하는 8문항을 선정하였다.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잘 8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동일하게 리커트 5점척도를 적용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8문항의 신뢰도는 0.870으로 분석되었다.

2.3.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로 제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5]가 개발하고 전병재[16]가 수정한 내용을 간순옥[17]이 조사연구에 적용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평가를 위해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8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각 문항들의 응답범주는 동일하게 리커트 5점척도를 적용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다.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930으로 분석되었다.

2.3.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인식이 종속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학대인식의 경우, 홍순옥과 이옥경[3, 재인용], 김요섭[6, 재인용]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참고하여 8문항을 제시했다. 성적 학대 인식은 이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로 제시된 행위들을 검토하여 8문항을 선정했다. 정서적 학대인식의 경우, 홍순옥과 이옥경[3, 재인용], 김요섭[6, 재인용], 권세경과 이은정[18]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는 행위들을 검토하여 8문항을 선정했다. 방임 인식은 최중백[19]의 연구를 참조하여 14문항을 제시했다.

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정도의 응답범주는 각각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 ⑤ 틀림없는 학대이다’의 리커트 5점척도로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아동

학대인식은 0.852, 성적 학대인식은 0.851, 정서적 학대인식은 0.890, 방임 인식은 0.93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시에 아동학대인식의 전체 문항과 관련하여 종속변수 측정을 안정화시키고, 모델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고 각 하위요인의 총점을 요인으로 변환 투입하였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유무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더미 변수(1=남, 0=여)로 전환시켰고, 연령은 만나이인 '세'로 측정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업, 대학원졸로 측정하여 '1=대졸이상', '0=대졸미만'으로 전환시켰다. 월소득은 조사대상자 가정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만원'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유무는 먼저 조사대상자의 현재 종사직종을 파악한 후, '1=직업있음', '0=직업없음'으로 전환시켰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아동학대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투입된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잔차(residual)로 제시하고 있어 통제되지 않은 변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 먼저 주요 변수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결측자료에 대해 평균대체방법을 사용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료의 정규성(normality)과 다중공선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있어 모형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선결과 관련하여 표본에 덜 민감하고 모형간명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확인했으며,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보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과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인식과 관련하여 성학대인식의 평균(4.78점)이 가장 높았고, 방임 인식(평균 4.17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3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전체는 평균 3.7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는 2이하, 첨도는 4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100 ~ .727 사이에 분포되어 .8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Awareness of child abuse	total	4.42	.955	.114
	physical abuse	4.46	-1.131	3.211
	sexual abuse	4.78	-.882	-.343
	emotional abuse	4.27	.253	-1.401
	neglect	4.17	.363	-.982
Parenting stress	total	2.38	.158	1.476
	st1	2.38	.554	-.151
	st2	2.53	.206	-.556
	st3	2.95	-.104	-.439
	st4	2.39	.447	-.147
	st5	2.41	.289	-.249
	st6	2.10	.720	.188
	st7	1.86	.676	.290
	st8	2.42	.203	-.487
Self-esteem	total	3.78	-.685	-.240
	se1	4.02	-.552	1.308
	se2	3.76	-.339	.500
	se3	3.55	-.061	-.222
	se4	3.97	-.282	.472
	se5	3.42	.177	-.325
	se6	3.85	-.351	.165
	se7	3.74	-.367	.135
	se8	3.67	-.270	.013
	se9	3.92	-.257	.069
	se10	3.89	-.348	.355

3.2 모형검증

3.2.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을 확인하였는데, 모형적합도는 TLI=.909, CFI=.919, RMSEA=.067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측정변수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2. Analysing the me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Awareness of child abuse	→ physical abuse	1.000	.758		
	→ sexual abuse	.107	.279	.021	5.178***
	→ emotional abuse	1.382	.899	.088	15.754***
	→ neglect	2.204	.771	.148	14.889***
Parenting stress	→ st1	1.000	.608		
	→ st2	.664	.491	.079	8.383***
	→ st3	1.088	.660	.103	10.615***
	→ st4	1.076	.688	.098	10.936***
	→ st5	1.299	.811	.106	12.234***
	→ st6	1.063	.623	.105	10.157***
	→ st7	1.334	.814	.109	12.260***
	→ st8	1.219	.686	.112	10.915***
Self-esteem	→ se1	1.000	.761		
	→ se2	1.005	.724	.068	14.809***
	→ se3	1.032	.691	.074	14.039***
	→ se4	.878	.687	.063	13.953***
	→ se5	1.049	.708	.073	14.431***
	→ se6	1.063	.743	.070	15.262***
	→ se7	1.191	.819	.070	17.112***
	→ se8	1.218	.800	.073	16.637***
	→ se9	1.159	.842	.066	17.682***
	→ se10	1.055	.774	.066	15.990***

$\chi^2(df=206)=2.739^{***}$, TLI=.909, CFI=.919, RMSEA=.067
*p<.05, **p<.01, ***<.001

3.2.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df=301)=2.312$, p<.001). 그러나

이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이 적절한 경우에도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합지수 RMSEA를 살펴본 결과, .058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적합지수들인 TLI=.897, CFI=.912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9$, p<.01). 이는 학부모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학대인식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7$, p<.001). 이는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인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아동학대인식으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5$, p<.05). 이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동학대인식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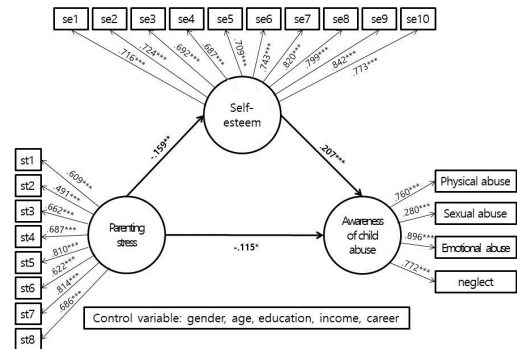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model of main variables

Table 3.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tent variable	Path	Path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Parenting Stress	→ Self-esteem	-.149	-.159	.052	-2.845 **
Self-esteem	→ Awareness of child abuse	1.201	.207	.332	3.618 ***
Parenting Stress	→ Awareness of child abuse	-.625	-.115	.309	-2.019 *

$\chi^2(df=301)=2.312^{***}$, TLI=.897, CFI=.912, REMSEA=.058
*p<.05, **p<.01, ***<.001

3.2.3 매개효과 검증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인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추정값은 $-.033$ 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며, 95% 신뢰구간의 상한 및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인식을 부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한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CI	
			Lower	Upper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wareness of child abuse	$-.033^*$.015	-.060	-.005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아동학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이고 주요 가해자가 아동의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케어하는 보육시설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조사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아동학대인식이 올바르게 낮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대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방향으로, 자아존중감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학부모들의 경우 명백한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부모들은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태에 처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학부모들은 자아효능감이 감소하면서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상태로 인해 아동학대인식도가 낮아지고 아동학대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아동학대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인식을 높이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정보제공, 부모 대상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및 세미나,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실천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방안에 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에는 대체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21]. 특히 문성주와 김성길[22]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횟수에 따라 일회성 또는 정규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는 명상기법[23], 미술치료[24], 음악치료[25]와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훈련[26], 교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27], 자녀가 속한 시설환경의 변화[28] 등 양육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다루는 방안들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침서 등에 추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더불어 아동학대인식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인식의 인과관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을 반영하여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에니어그램에 기반을 둔 독서상담사 양성프로그램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29].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독서상담사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 삶 가운데서 추구했던 자신의 가치를 미래의 삶의 이야기에 재구성하는 내러티브 치료[30]와 같이 자기정체성의 재해석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나 자녀와의 관계향상 및 갈등감소를 위한 개인·가족상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행정적·제도적 측면의 조건들이 있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문제점들 중 예산 부족과 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량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의 추가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른 활동을 추가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총원과 더불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에 비해 다소 미진한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아동학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에는 다양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인식의 관련 변인들을 밝혀내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복지학적인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 [1] Health and Welfare Ministry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7). *A Report of the National Child Abuse*. Sejong : Health and Welfare Agency.
- [2] M. Y. Lee. (1995). A Study on Child Human Rights and Abus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8(1), 99-123.
- [3] S. O. Hong & O. K. Lee. (2010).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Busan Study on Child Human Rights and Abus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3, 75-90.
- [4] S. Y. Park, H. A & H. M. Kang. (2017). The Effects of Teaching Ethical Awareness to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hild Abuse Awarenes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8(2), 319-336.
- [5] H. S. Chung & E. J. Lee. (2016). A Study for Perceptions and Copy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1(1), 69-90.
- [6] Y. S. Kim. (2011).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Their Awareness toward Child Abuse.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4), 63-82.
- [7] S. J. Lim & S. K. Jeon. (2016). The Influence of Middle-High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4), 123-137.
- [8] H. K. Jang & H. Y. Kim. (2013).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of the Adult Caregiver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3), 358-36.
- [9] J. W. Han. (2017). The Cognition and Reporting Attitude toward Child Abuse according Job Stress Level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21(1), 237-261.
- [10] H. Y. Kim & H. S. Yoon. (2016). Affect Self-esteem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hild Abuse Awar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4), 547-566.
- [11] J. Y. Shin & H. W. Hwang. (2008).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3), 101-122.
- [12] Health and Welfare Ministry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6). *A Report of the National Child Abuse*. Sejong : Health and Welfare Agency.
- [13] J. E. Song. (2016). *Effect of Experience in Family Origin of Mothers on Parent Stres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yupsung University, Kyunggi.
- [14] R. R. Abidin. (1990). *Parenting Stress Index-Manual*. VA : Th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1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6] B. J. Jeon.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1), 107-129.
- [17] S. O. Kan. (2017). *Ecological Systemic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Soci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18] S. K. Kwon & E. J. Lee. (2016).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Category of Acceptance in the Framework of

- the Current Regula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347-362.
- [19] J. B. Choi. (2008). Korean Parents' Perception of Child Neglect. *Dongkwang*, 104, 1-38.
- [20] G. S. Kim. (2010).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oul: Hannarae Press.
- [21] E. M. Kang & S. K. Kim.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f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and Satisfaction for Child Care Services on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The Stud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6(1), 67-88.
- [22] S. J. Moon.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3(3), 1-16.
- [23] K. Y. Kim. (2011). Council Case Study of Nuturing Stress of Mothers Who Adopted Secretly. *The Korean Journal of Meditationtherapy*, 6, 297-337.
- [24] J. M. Kim & S. H. Kim. (2017).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Parenting Stress and State Anxiety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9(1), 19-40.
- [25] J. E. Yang. (2007). The Effects of A Group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Education*, 4(1), 1-20.
- [26] K. H. Jeon & S. J. Jo. (2015). The Effects on the Parent'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3), 165-174.
- [27] M. H. Park. (2012).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s of Special Class Students'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9-41.
- [28] E. H. Seo & M. S. Lee. (2011).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Workplace Child-care on the Parenting Stress,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are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1), 41-65.
- [29] J. H. Kim & E. S. Yoon. (2017). Effect of Enneagram-based Reading Counselor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Parents with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4(2), 63-90.
- [30] S. H. Lee, S. K. Chung & N. S. Huh. (2010). *Maps of Narrative Practice*. Seoul : Hakjisa.

이 병 록(Lee, Byoung Rock) [정회원]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직무만족
- E-Mail : brlee@konyang.ac.kr

황 환(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정신건강증진, 우울자기관리
- E-Mail : dosah33@naver.com